

벽소 이영민과 <순천가>

김용찬*

|| 차례 ||

1. 머리말
2. 벽소 이영민의 생애와 문화 활동
3. <순천가>에 나타난 순천의 형상과 그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가사 <순천가>는 순천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지명에 얽힌 고사나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면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순천에서 활동했던 벽소 이영민이 1930년 경에 창작한 것으로, 순천의 산천과 명승을 비롯하여 여러 유적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가 <순천가>를 창작한 동기는 판소리 창자들이 허두가 형식의 노래로 불리도록 함으로써, 순천의 산천과 유적을 소개하여 유서가 깊은 고장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순천가>의 작자인 이영민은 교육자이자 서예가이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찍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비참한 현실에 처한 농민들을 위하여 농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순천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주도하면서, 일제의 탄압으로 그는 결국 2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판소리 명창들의 후원자로 나서, 일제 강점기 시절 판소리의 명맥을 잇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출옥 이후 그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후에는 문화 운동에 주력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당대 음악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음악을 감상하고, 이를 한시로 지은 다음 그것을 배경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어 남기기도 하였다.

이영민은 자신의 고향인 순천의 문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말미

*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암아 고향을 소개하는 내용의 <순천가>를 창작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고향의 산천 문물과 그에 연관된 인물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기에, 작품을 읽음으로써 순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인 것이다. 작품을 읽어보면 순천의 지명만을 거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자만의 방식으로 일제에 대한 항거 의식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순천가>는 작자의 고향인 순천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순천가, 벽소 이영민, 허두가, 판소리 후원자, 순천의 문물 등

1. 머리말

본고에서 다룰 <순천가(順天歌)>는 순천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의 지명에 얽힌 고사나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면서 형상화한 가사 작품이다.¹⁾ <순천가>는 지명을 이용하여 지은 ‘지명가사’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지명가사는 지리 학습이란 실용적 가치와 애향심 고취라는 정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

1) <순천가>의 갈래를 가사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판소리 단가’(허두가)의 창법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이 순천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소개에 집중되고 있고, 화자의 여정에 따라 작품을 이끌어 가는 등 기행가사의 특성과 흡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 4음보격에서 벗어난 시행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러한 음보의 일탈은 여타의 가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가사의 일부 구절을 이끌어 판소리 단가로 부르기도 하기에, 두 갈래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순천가>를 작자가 판소리 단가로 가창될 것을 예상하며 지은 ‘가사’로 파악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권순회는 판소리 단가를 ‘판소리 도창(導唱)’의 기능과 독자적인 창곡(唱曲)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동시에 가지며 발전과 변모를 겪어온 가창 장르’라 규정했는데, 이 작품은 현재 불리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독자적인 창곡’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권순회, 『단가의 사적 전개와 문학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면.)

된다.²⁾ <호남가>를 비롯한 조선 후기 지명가사들은 대체로 ‘호남’이나 ‘영남’ 등의 광범한 지역을 설정하여, 개별 지명이 나타내는 뜻을 풀어내면서 유람의 흥취나 태평성대의 분위기를 그리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 경우가 많다.³⁾ 물론 조선 후기의 ‘현실비판가사’에서도 특정 지명을 제목으로 한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갑민가>·<향산별곡>·<거창가> 등이 특정 지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조선 후기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탈상과 이에 대한 민중들의 행동과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⁴⁾ 하지만 <순천가>는 마치 순천의 명소를 화자가 답사하면서 소개하듯이 형상화하고 있어, ‘현실비판 가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형상화 방식은 오히려 <호남가> 등의 지명가사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가사 <순천가>는 순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영민이 1930년 경에 창작한 작품으로, 순천의 산천과 명승을 비롯하여 여러 유물과 유적지 등 40여 곳이 소개되어 있다. 이 작품의 작자인 이영민은 일제 강점기 시절 판소리 창자 등 예술인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는 우석 김종익과 함께 전국의 명창을 자주 초청하여 판소리를 듣고, 그 소감을 한시로 남겼다.⁵⁾ 따라서 판

2) 이해화, 『『해동유요』 소재 가사고』(『국어국문학』 제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96면. 『해동유요』나 『악부』(고대본) 등 조선 후기의 시가 수록 문헌들에는 <호남가>·<영남가>·<호서가> 등의 제목으로 지명가사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3) 신재효의 <호남가>를 중심으로 한 지명가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은, 『신재효 가사 연구』(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7~90면 참조.

4) 이들 작품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용찬, 『<갑민가>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재검토』(『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서, 2002; 진경환, 『반봉건과 문학적 대응, 민란가사』(『우리 고전문학을 찾아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등의 논문을 참조할 것.

5) 이영민은 1920년부터 1948년까지 판소리 창자 등 음악인들에 대해 한시로 평을 한 후,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남겼다. 송만갑·이동백 등 총 54명의 음악인에 대해 사진과 함께 평시를 남긴 귀중한 자료를 ‘(사)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

소리 문화에 익숙했던 작자가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을 푸는 용도로 불렀던 ‘허두가(虛頭歌)’를 엄두에 두고 창작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순천 지역의 가창자들에 의해 현재 노래로 불리며 전승되고 있다.⁶⁾ 이영민이 <순천가>를 창작한 동기는 판소리의 ‘명창들에게 순천의 산천과 유적을 노래하게 함으로써 이곳이 유서 깊은 고장임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⁷⁾

이렇듯 노래로 불러 전하고 있음에도, <순천가>와 작자 이영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⁸⁾ 특히 일제 식민지 시절 판소리 후원자로 활동하면서 당대 예술계에 끼친 그의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영민이 남긴 판소리 창자 등 음악인들의 사진과 그들에 대해 평한 한시는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그의 작품을 엮어 만든 『벽소시고(碧笑詩稿)』도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순천가>의 성격과 작자인 이영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에 먼저 작자인 벽소 이영민의 생애와 활동 양상에 대해 논하고, 가사 <순천가>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벽소 이영민의 생애와 문화 활동

벽소(碧笑) 이영민(李榮珉:1882~1964)은 순천시 상사면 출신으로, 교

에서 정리하여, 『관극(觀劇)·시(詩)·사(寫)』라는 제목으로 묶어 놓았다.

6) 박만조의 손녀인 박향산(1924~2005)이 <순천가>에 곡을 붙이고 노래로 만들어 보급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순천시사-문화·예술편』(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148면.

7) 『순천시사-문화·예술편』, 153면.

8) <순천가>에 대해서는 음악적 관심에 의해 곡을 분석한 논문 1편만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다.⁹⁾ 그는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호를 딴 ‘벽소서체’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일찍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소작농들을 위하여 소작투쟁을 전개하는 등 농민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아울러 1920년경부터 판소리 명창들을 비롯한 당대 음악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펼쳤고, 그들의 후원자로 나서 일제 강점기 시절 판소리의 명맥을 잇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는 다수의 한시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의 작품은 시문집인 『벽소시고』에 전하고 있다.¹⁰⁾ 이영민은 1930년대 이후 판소리 후원 등 문화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해방 이후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다가 1964년 광주에서 생을 마쳤다.

부친 이세근(李世根)과 모친 정매곡(鄭梅谷)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영민의 초명(初名)은 희수(熙守)였고, 취산(醉山)과 벽소(碧笑)라는 호를 사용하였다.¹¹⁾ 어린 시절부터 한학과 서예를 배웠으며,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순천에서 1906년 야학을 개설하여 후학들의 교육에 매진했다. 박승휘와 함께 1910년 순천남학당(현 순천남초등학교)을 공립으로 인가받아, 1916년까지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일제의 강점기에 접어든 현실에서 1917년 그는 교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

9) 이하 이영민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그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항일독립운동가로 지정받기 위해 작성한 ‘독립운동가 포상신청서’(2007년 8월 작성)에 의거해 정리하였다.

10) 『벽소시고』는 등사본으로, 전체 62면(부록 포함)에 130여수의 한시가 수록된 이영민의 문집이다. 후반부에 부록으로 『청구악부초』가 첨부되어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인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표제를 썼으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위창관십옹오세창(葦滄八十翁吳世昌)’이라는 글과 함께 오세창의 도장이 찍혀있다. 이로 미루어 『벽소시고』의 편찬은 오세창의 80세 무렵인 1943년에 이뤄졌으며, 이후에 창작한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문집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학생혁명(學生革命)’과 ‘이박사망명포왜(李博士亡命布哇)’란 제목의 시들은 1960년 ‘4.19혁명’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어, 이영민의 한시 창작은 말년인 이 시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1) 이영민은 처음에는 ‘취산’이라는 호를 사용하다가, 후에 ‘벽소’로 바꾸었다.

을 하다가 1919년 귀국하였다. 이후 순천 지역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당시 거세게 전개되었던 소작투쟁을 주도하는 등 농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했다. 당시 일제와 결합된 지주들의 부당한 소작료 횡포로 도탄에 빠진 소작농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청년회와 무산자동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가 남긴 한시에는 소작인들의 참상을 전하는 다음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가뭄이 들어 심은 것들 모두 익지 않았고	耕旱無全熟
가을 밭엔 푸른 풀만 많더라.	秋田青草多
지주는 사납기가 맹수와 같고	地主猛如獸
마름은 독하기가 뱀과 같더라.	畝音毒似蛇
한 해 내내 몸을 부러 수확한 물건은	終歲筋骨物
모두 부자집 곳간으로 들어가네.	悉歸富人庫
새벽부터 서리 속의 뿔나무를 해오고	晨取霜裏薪
밤에는 달빛에 짚신을 엮네.	夜捫月邊履
어머님 병환에 약값조차 없으니	母病無藥價
달이 비추는 찬 평상 위에 누워있을 뿐.	彌月臥冷床
자녀들은 모두 배울 때를 잃어버려	子女俱失學
때때로 닭과 송아지만을 쫓아다니네.	時逐鷄犢行
온 집안에 곡식 한 말조차 없으니	全家無斗穀
채소죽으로는 배를 채우기가 어렵더라.	菜粥難實腹
이웃의 여우는 또 심은 것을 빼앗아가니	鄰狐又奪耕
문에 들어서자 처자식의 곡소리가 들리네.	入門妻子哭
언제나 좋은 봄볕을 얻어	安得好陽春
두루 천하의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으리.	遍花天下木. ¹²⁾

5언 18행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소작인의 눈물(小作淚)’이라는 제목에

12) 『소작루(小作淚)』, 『벽소시교』, 18면.

서 볼 수 있듯이, 지주와 마름의 착취 속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소작인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의 수확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데도, 가을이 되면 꼬박꼬박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쳐야하는 것이 소작인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소작료를 바칠 때면 지주는 맹수처럼 사납게 굴고, 그들의 대리인인 마름(畝賈)들은 마치 뱀처럼 교활하게 소작인들을 독촉하였다. 그렇게 온몸으로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은 그대로 지주인 부자들의 공간으로 향했던 것이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새벽부터 이슬을 헤집어 땀나물을 하고, 밤늦도록 짚신을 엮어 팔아도 병이 들어 찬 평상에 누워계신 어머니의 약값조차 댈 수 없었다. 더욱이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 자식들은 그저 닭이나 송아지를 키우며 소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집안에 곡식이 없어 채소로 죽을 쑤지만, 그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웃의 여우(鄰狐)’는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롭게 심어 놓은 수확물마저 빼앗아간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집안에 있던 처와 자식들은 곡소리를 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작농이 처한 처참한 현실에서 작자는 ‘좋은 봄별을 얻어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시절을 만나기란 요원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작자인 이영민이 목도한 소작농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¹³⁾ 그리하여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는 농민회와 청년회 등을 조직하여 농민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전국적으로 소작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순천에서도 그의 주도 아래 활발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농민운동은 항일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찍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항일 운동에 적극

13) 그의 또 다른 시인 ‘전가(田家)’에서도 당시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상이 제시되어 있다. “夫耕婦採未歸家，蓬戶兒啼日欲斜。稅吏入門還自去，青豕吠落野櫻花。” ‘전가’, 『벽소시고, 21면.

적으로 나섰던 이영민은 소작투쟁의 여파로 끝내 일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약 2년간(1926~1928)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¹⁴⁾

이영민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1920년 4월부터 동아일보 기자로도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천 지역의 유지인 우석(又石) 김종익(金鍾翊:1886~1937)¹⁵⁾과 함께 판소리 창자 등 예술가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¹⁶⁾ 이영민은 출옥 이후 일제에 의해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어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자, 이후 문화 예술 활동에 주력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영민의 문집 『벽소시고』의 부록인 『청구악부초(靑邱樂府抄)』에는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장편의 한시로 만든 <옥중화가(獄中花歌)>와 ‘근대국악계인물(近代國樂界人物)’이라는 표제 아래 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 등 41명의 판소리 명창 등 음악인들을 소개하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영민은 이들을 직접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대국악계인물’에 거론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¹⁷⁾

14) 『벽소시고』에는 이영민이 옥고를 치르면서 각 계절별로 감회를 담은 시 4수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각각 ‘囹圄春感’(19면), ‘囹圄夏感’, ‘囹圄秋感’, ‘囹圄冬感’(이상 20면) 등이다.

15) 우석 김종익은 순천농업학교(현 순천대학교)를 설립하는데 부지와 건물대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를 설립하는 등 식민지 시절 교육 사업을 통한 후학들의 양성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유언을 남겨, 재산의 반을 교육 사업과 국악을 후원하는 등의 사회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순천시사-문화·예술편』, 101~108면 참조)

16) 이영민은 김종익으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토록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1935년 서울 익선동의 건물을 구입하여 ‘조선성악연구회’를 발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당시 판소리 창자를 비롯하여 많은 음악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 당국의 회유와 탄압에 의해 1940년 끝내 해산하게 된다.

17) ‘근대국악계인물’에는 이름과 함께 그들의 특장 및 생년과 출신지·시승 관계 등이 소주(小註)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들의 음악 등에 대해 평한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가 근대 판소리사의 전개 양상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 판단되어, 여기에 수록된 예술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특장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판소리 창자들은 대부분 ‘창극조(唱劇調)’·‘창극창(唱劇唱)’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1. 송만갑(창극조), 2. 이동백(창극조), 3. 김창룡(창극창), 4. 정정렬(창극조),
5. 이선유(창극), 6. 한성준(명고), 7. 정응민(창극조), 8. 배설향(창극조), 9. 이화중선(창극조), 10. 박록주(창극조), 11. 김초향(창극조), 12. 김여란(창극조), 13. 김연수(창극조), 14. 임방울(창극조), 15. 정원섭(명고), 16. 백락준(금사), 17. 이소향(가야금사), 18. 조몽실(창극조), 19. 김준섭(창극조), 20. 박초월(창극조),
21. 오태석(가야금사), 22. 김종기(가야금사), 23. 김소희(창극조), 24. 박귀희(창극조), 25. 김명옥(창극조), 26. 정광수(창극조), 27. 오비취(창극조), 28. 신숙(창극조), 29. 신쾌동(금사), 30. 함동정월(창극조), 31. 송영숙¹⁸⁾(창극), 32. 조소옥¹⁹⁾(창극), 33. 조금옥(창극), 34. 이중선(창극), 35. 박채련(창극), 36. 조농옥(창극), 37. 강산홍(창극), 38. 한갑득(금사), 39. 김록주(창극), 40. 한애순(창극), 41. 안채화²⁰⁾(창극조)

‘창극(唱劇)’ 혹은 ‘창극조(唱劇調)’로 소개된 판소리 창자들이 모두 33명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당대에 활동했던 판소리 명창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고(名鼓)’로 소개된 고수(鼓手)는 한성준(韓成俊)·정원섭(丁元燮) 등 2명이며, 거문고 연주자인 ‘금사(琴師)’도 모두 3인으로 백락준(白樂俊)·신쾌동(申快童)·한갑득(韓甲得) 등이다. 그밖에 이소향(李素香)·김종기(金宗基) 등 가야금 연주자인 ‘가야금사(伽倻琴師)’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하에 민중들의 현실은 당장 먹고 사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판소리 등 우리 음악에 대한 이영민의 적지 않은 관심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영민은 당시 농

18) 『청구악부초』에는 송영석(宋永石)으로 되어 있으나, 사진 자료인 『관극·시·사』에는 송영숙(宋永淑)으로 소개되어 있다.

19) 『청구악부초』에는 조소석(趙素石)으로 표기되었으나, 『관극·시·사』에는 조소옥(趙素玉)으로 소개되어 있다.

20) 『청구악부초』에는 안채봉(安彩鳳)으로 표기되었으나, 『관극·시·사』에는 안채화(安彩花)로 소개되어 있다.

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소작농들을 대변하여 농민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학교를 창설하는 등의 교육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하에 살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 보전을 위한 후원자로 나서는 등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영민의 의식지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영민은 이처럼 당대 음악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노래와 음악을 감상하고, 이를 한시로 지은 다음 작품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사진을 찍어 남기기도 하였다.²¹⁾ 당시 이영민은 명창들의 소리를 듣고 즉석에서 ‘관극시(觀劇詩)’를 지어, 그 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사진을 전해 받은 음악인들은 그것을 큰 훈장처럼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였다고 한다.²²⁾ 그의 문집에는 시조창에 능했던 김염운(金念雲:1881~1926)을 ‘여류시인’이라 칭하며 3수의 한시를 남겼는데, 그녀와는 시와 노래로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 또한 무용가 최승희에게 주는 시²⁴⁾도 보이며, 미술가인 허백

21) 음악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 역시 『벽소시고』가 편찬된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에서 정리해 펴낸 『관극(觀劇)·시(詩)·사(寫)』에는 「청구악부초」에 수록된 41명을 포함해 모두 54인의 음악인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영민의 음악인들에 대한 사진 촬영 작업은 1920년부터 1948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청구악부초』에 언급된 인물들 중 김명옥(金明玉)은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며, 「관극·시·사」에 새로이 보이는 인물들은 모두 14명으로 다음과 같다. 김염운(金念雲:시조창), 김용련(金容蓮:판소리), 홍두환(洪斗桓:고수), 성명관(成明寬:가야금), 임소향(林小香:판소리), 김옥주(金玉珠:검무), 임종성(林鐘成:피리), 오기석(吳基石:판소리), 정남희(丁南希:가야금), 조동선(曹東善:판소리), 박춘섭(朴春燮:가야금), 성윤준(成潤準:판소리), 오천봉(吳千峯:피리), 오학남(吳鶴南:거문고) 등.

22) 이영민이 찍어 남겼던 당대 음악인들의 사진과 한시는 여러 음악 관련 문헌에 인용되어 전하고 있으나, 그 기록을 남긴 이영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 18~19면.

23) 『벽소시고』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和金念雲女流詩人’, ‘附金念雲作’(이상 21면), ‘贈金念雲女流詩人’(25면). 이 중 『관극·시·사』에도 수록된 ‘증김

련²⁵⁾ · 김은호²⁶⁾ · 허립²⁷⁾ · 손재형²⁸⁾ 등에게 주는 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자신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미술인들과도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순천 출신으로 당시 권투선수로 활약했던 서정권(徐廷權·1912~1984)에 대한 시²⁹⁾도 남겼으며,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손기정(孫基禎)³⁰⁾과 남승룡(南昇龍)³¹⁾을 기리는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연자루(燕子樓)’ · ‘환선정(喚仙亭)’ 등 순천 지역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그 감회를 적은 한시도 다수

염운여류시인’에서는 김염운을 황진이에 비견하는 인물로 그려놓고 있는데,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詩才琴藝已超人, 氷操花容不染塵. 絶唱嵩陽三百載, 江南又見一黃眞.”

- 24) “天作金剛山, 人作金剛舞. 俱是在東方, 奇名動今古.”, ‘贈崔承喜女流舞歸家’, 『벽소시교』, 26면.
- 25) 『벽소시교』에 ‘贈毅齋許百鍊’(27면)과 ‘附毅齋許百鍊’(31면) 등 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 26) 『벽소시교』에 ‘贈以堂金殷鏞’(28면)가 보인다.
- 27) 『벽소시교』에 ‘弔許林’(32면)에 수록되어 있고, 제목 아래에 천재화가였던 허립에 대해서 소주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허립(許林)은 화가인 소치(小癡) 허련(許鍊)의 손자이며, 미산(米山) 허형(許滢)의 아들이고, 남농(南農) 허건(許健)의 아우이다. 이영민은 그를 가리켜 ‘천재화가’로 평가하였으며, 조선시대의 뛰어난 시인이었던 박은·허난설헌·이언진 등이 모두 27세에 요절했는데 허립 역시 27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밝히고 있다.
- 28) 『벽소시교』에 ‘贈素筌孫在馨’(34면)이 수록되어 있다.
- 29) “勇若飛獅拳若鐵, 遍行歐美孰爲儔. 諸門技術皆如子, 何患吾邦霸六洲.”, ‘贈拳闘家徐廷權’, 『벽소시교』, 26면.
- 30) “白頭山屹鴨江通, 産得吾邦盖世雄. 制霸名聲垂宇宙, 國華一日滿西東.”, ‘贈孫基禎’, 『벽소시교』, 28면. 이 작품에는 ‘於獨逸世界마라톤競走一着’이라는 부기가 달려 있다.
- 31) “虎躍龍飛伯林會, 靑邱鐵脚最先頭. 名聲不獨芳千載, 自是邦威耀六洲.”, ‘贈南昇龍’, 『벽소시교』, 29면. ‘증손기정’과 나란히 수록된 이 작품에는 ‘소上競走三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남승룡은 이영민과 동향인 순천 출신으로, 그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가 해마다 순천에서 열리기도 한다.

남기고 있다. 자신의 고향인 순천 출신의 인물이나 경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고향을 소개하는 가사 <순천가>를 창작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순천가>는 가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판소리에 대한 작자의 관심³²⁾으로 보아 애초부터 허두가(판소리 단가)를 염두에 두고 창작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³³⁾ 이 작품은 작자의 고향인 순천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라 파악된다.

<순천가>는 지역의 지명을 소개하면서, 그에 얽힌 고사나 역사적 인물 등을 함께 거론하고 있어 순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즉 지역의 산천 문물과 그에 연관된 인물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기에,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순천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예술적 측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순천가>에는 단지 고향의 산천과 문물만을 거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자만의 방식으로 일체에 대한 항거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3. <순천가>에 나타난 순천의 형상과 그 의미

벽소 이영민이 창작한 <순천가>는 문학적 갈래로는 ‘가사(歌辭)’로 분류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가사는 4음보 율격의 연속체 율문이라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 주제나 소재 등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문학 갈래이다.

32) 그의 문집에는 판소리 <춘향가>를 듣고 지은 ‘節妓成春香’(18면)이란 다음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秋山爲志玉爲姿, 別後能甘苦獄時. 妓門守節芳千載, 今日行歌萬口移.”

33) 이 작품은 후에 곡을 붙여 노래로 불리고 있다. 대체로 허두가는 중모리 장단을 중심으로 부르는 반면, 현재 불리는 <순천가>는 중모리 이외에 진양조와 중중모리 등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정화, 앞의 논문, 20면.

일반적으로 장편의 가사는 노래로 불리기보다는 읊조리는 형태로 음영(吟詠)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가사 형식의 다양한 갈래들이 출현하게 된다. 십이가사·잡가·허두가(판소리 단가) 등은 그 형태상 가사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문적인 창자(唱者)에 의해 노래로 불리기 때문에 이들 갈래를 일컬어 ‘가창가사(歌唱歌辭)’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³⁴⁾ 따라서 <순천가>는 가창가사의 일종으로, 주로 판소리에 앞서 목을 푸는 용도로 불리던 ‘허두가’ 형식이라 파악된다. 대체로 허두가를 비롯한 가창가사들은 시행이 4음보의 정격에서 이탈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순천가> 역시 4음보 율격에서 벗어나는 시행이 다수 발견된다.

벽소 이영민은 판소리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우석 김종익과 함께 전국의 명창들을 초청하여 자주 소리판을 벌였다고 한다. 판소리에 관심이 많았던 벽소는 당대의 명창들에게 순천의 산천과 유적을 노래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이 유서가 깊은 고장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하기 위해 <순천가>를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창작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사로만 전승되고 있었다. <순천가>에 곡을 붙여 노래를 했던 박향산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민의 아우 이영춘이 <순천가>가 노래로 불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명창인 박봉술에게 곡을 부탁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봉술이 서울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박향산에게 부탁하여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었다. 작자는 아마도 판소리 창자들에게 <순천가>를 허두가로 부르게 하면 순천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불리는 <순천가>는 허두가로 불리기에 알맞도록, 중머리에서 시작해서 진양조를 거쳐 중중머리로 끝나는 곡조로 짜여 있다.³⁵⁾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화자가 순천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형과 사적

34) 이상 가사의 갈래적 특징에 관해서는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민음사, 1986), 118면을 참조하였음.

35) 이상의 내용은 『순천시사-문화·예술편』, 153면 참조.

을 소개하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순천의 지형을 고려하여 실제로 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짜여 있으며, 고사(故事)나 사적(史蹟) 등 주로 객관적인 사물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러 작품에 나타난 순천의 모습은 대체로 특정 지형이나 지명의 특징을 언급하는 등 경물 위주로 배치되어 있다. <순천가>의 이러한 내용적·형식적 특성은 아마도 <호남가> 등 기존의 ‘지명가사’의 특성을 수용한 탓이라 하겠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논한다고 할 때, 그곳에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문화적 환경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순천이란 공간은 특정의 자연 공간 속에서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천가>에는 지역의 지형과 지명에 얽힌 각종 사적과 고사는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지역에서 농민운동과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작자를 고려할 때, 작품 속에 그려진 순천의 모습이 경물이나 사적 위주로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면모라 여겨진다. 물론 이는 자연을 주로 관념적인 면모나 풍류의 공간으로 그려냈던 조선 후기의 가창가사들의 면모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라 평가할 수는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작품 속에 제시된 시간적 배경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 하는데, 이는 명승지의 풍경을 그려내기 위하여 그에 걸맞은 묘사를 찾아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순천가>의 내용이 비록 자연 경물을 묘사하는데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의 유물을 소개하면서 임진왜란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활약했던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역사적 인물들의 경우 향교나 누정 등을 거론하면서 그에 연관된 유학자들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으나, 특히 일본에 맞서 싸웠던 인물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자가 농민운동으로 투옥된 후 풀려난 다음에 이 작품

이 창작되었는데, 일제의 탄압이 강고해가던 1930년대의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영민은 순천의 여러 사적에 나타난 관련 인물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독자(청자)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항일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순천가>는 단순히 자연 경물과 사적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이 작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작자 이영민의 현실 인식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순천가>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용의 검토를 통해 작품 속에 그려진 옛 순천의 형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³⁶⁾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簞瓢子)로 호남(湖南) 순천(順天)을 구경(求景)가자

장대(長臺)³⁷⁾에 봄이 오니 양류 천만사(楊柳千萬絲)요

죽도봉(竹島峰)에 구름이 지어 만성명월(滿城明月)이 삼경야(三更夜)라
동천(東川)을 건너 환선정(喚仙亭)을 당도(當到)하니

지당(池塘)에 백련화(白蓮花)는 맑은 향기(香氣) 넘쳐 있고

유지(柳枝)에 앵앵(嚶嚶)한 피꼬리는 벗 부르는 소리로다.

중중(重重)한 녹음(綠陰) 중(中)에 활을 쏘는 다수(多數)의 무사(武士)
들은

애애(藹藹) 동기(童妓) 더부리고 백보천양(百步穿楊)을 다투더라

이수(二水)를 건너 삼산(三山)을 당도(當到)하니

36) 2011년 현재 순천의 모습은 도시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19C 후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순천부전도’(1872년작, 규장각 소장)를 통해 당시의 순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결국 <순천가>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순천의 옛 모습을 재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37) 작품에는 ‘長臺’로 표기되어 있으나, 『순천부전도』(1872)에는 ‘章台’라 되어 있다. 현재는 ‘장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청천삭출 삼각봉(青天削出三角峰)은 반공(半空)에 솟아 있고
구만리(九萬里) 맑은 물은 용당(龍堂)으로 돌아든다.³⁸⁾

작품의 첫 단락으로, 화자는 ‘죽장망혜 단표자로’ 길을 나서 ‘호남 순천을 구경가’는 유람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어서 화자의 행선은 ‘장대- 죽도봉- 환선정- 이수- 삼산- 용당’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순천의 유람을 ‘장대’로 부터 시작하는데, 때는 봄이니 주변에는 수양버들의 가지가 휘휘 늘어져 있다. 그곳을 거쳐 ‘죽도봉’³⁹⁾에 오르니, 구름 속의 밝은 달이 비추어 시간은 이미 ‘삼경’이나 되었다. 화자가 거친 장소들은 모두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화자는 동천을 건너 ‘신선을 부른다’는 의미를 지닌 ‘환선정’에 당도하였다. 지금은 죽도봉 공원에 이주하여 재건되었지만, 환선정은 원래 동천가에 위치하여 활을 쏘는 사정(射亭)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잠시 멈춰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다. 정자 부근의 ‘못(지당)’에 피어 맑은 향기를 풍기는 ‘흰 연꽃’들을 감상하노라니, 강가의 버드나무에서는 피꼬리가 마치 벼를 부르는 듯 지저귀고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주변의 초목들을 배경으로 다수의 무사들이 화사한 복장⁴⁰⁾의 어린 기생들을 거느리고 활숨씨를 다투는 모습이 화자의 시선에 포착되었다. ‘백보천양(百步穿楊)’이란 ‘백보 정도의 거리에서 활을 쏘아

38) 작품의 인용은 진인호·허근 역해, 『순천 옛시』(순천문화원, 2004), 475~477면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였다. 원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글로 표기하고 원문의 한문은 괄호 안에 넣었다.

39) 죽도봉은 해발 101.8m로, 일대에 산죽과 동백이 울창하며 봉우리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주 찾았던 듯, 『벽소시고』에도 작자가 손자들을 거느리고 벼와 함께 죽도봉에 오르는 내용의 시가 전한다. “江上開別園, 遊人坐峽根. 洞深藏好鳥, 樹密掩孤村. 詩妙如禪境, 溪清洗市喧. 疎狂何處容, 日復倒芳樽.”, ‘與宋小波孫愚齋諸益登竹島峰’(22면).

40) ‘애애(藹藹)’는 ‘좋은 향기가 나는 모양’이나 ‘성품이 온화한 모습’을 의미한다.

버드나무 잎을 관통한다’는 의미로, 뛰어난 활숨씨를 가리킨다.⁴¹⁾

흔히 활을 쏘는 것은 선비들이 교양과목인 ‘육예(六藝)’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사정에서 활을 쏘는 이들은 정신수양을 하는 선비들이거나 아니면 대체로 한량들이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활을 쏘는 이들을 구태여 ‘무사’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그것도 ‘다수의 무사’들이 부지런히 활숨씨를 익혀 ‘백보천양할 정도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다. 아마도 작자가 뛰어난 활숨씨를 지닌 ‘다수의 무사’들이 양성되어 일체에 맞서 싸워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낸 것이라 해석된다. 물론 작품에 제시된 ‘다수의 무사’들이 있는 장면은 실제의 상황이라기보다, 사정으로 사용되었던 환선정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시적 장치로 이해된다.⁴²⁾

예로부터 흔히 두 개의 강과 세 개의 산이 존재하는 ‘이수(二水)’와 ‘삼산(三山)’을 명당으로 여겼는데,⁴³⁾ 이어지는 부분은 순천 역시 ‘이수’와 ‘삼산’⁴⁴⁾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화자의 시선에 ‘푸른 하늘에 깎아지른 듯이 솟아있는 삼각봉(青天削出三角峰)’의 모습이 멀리 보이고, 동천의 맑은 물은 인근의 ‘구만리’로부터 ‘용당’으로 흘러들고 있음을 표현하였다.⁴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단락은 처음 출발한 ‘장대’에서부터 용당에 이르

41) 중국 초나라 때 양유기(養由基)라는 사람이 백 걸음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쏘아 버드나무 잎을 꿰뚫었다는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42) 『벽소시교』에 수록된 ‘환선정(喚仙亭)’(9면)에 보이는 쓸쓸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斜陽立馬古沙汀, 舟斷橋崩野草青. 三島雲收人不見, 東風愁寂喚仙亭.”

43) ‘이수’와 ‘삼산’은 흔히 전체 8행으로 이루어진 이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경련(頸聯:5~6행)인 다음의 시구에서 유래한 것이라 여겨진다. “三山半落青天外, 二水分中白露州”(삼산은 청천 밖으로 반쯤 걸렸고, 이수는 백로주의 가운데로 나뉘었네.)

44) 『순천부전도』에 의하면 동천과 옥천이 만나는 부분을 ‘이수합(二水合)’이라 하였는데, 이수는 동천과 옥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삼산’은 현재 순천시 용당동 부근의 산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45) ‘삼각봉’, ‘구만리’, ‘용당’은 모두 순천의 지명들이다.

기까지 화자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광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향림사’로부터 ‘팔마비’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앞의 단락이 동천 주변의 풍광을 형상화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성시 주변을 돌아 순천성의 남문인 ‘연자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향림사(香林寺)를 당도(當到)하니 성시 지척(城市咫尺)에 선경(仙景)이
완연(完全)하구나

차산(此山) 승지(勝地) 벽계성(碧溪聲)은 과연(果然) 헛말이 아니로구나.
비봉산(飛鳳山) 저문 날에 법당(法堂)의 종(鍾)소리는 동구 적막(洞口寂寞)
을 깨트린다.

난봉산(鸞鳳山) 저문 날에 올라

고려 장군(高麗將軍) 박난봉(朴蘭鳳) 분묘 고적(墳墓古蹟)을 찾아보고
임청대(臨淸臺)에 올라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필적(筆跡)과
한훤당 선생(寒暄堂先生)의 옥천서원(玉川書院)을 찾아본 후
연자루(燕子樓)에 올라 사면 풍경(四面風景)을 바라보니

반구정반 도화발(伴鷗亭畔桃花發)이요 팔마비전 벽옥류(八馬碑前碧玉
流)라

손랑(孫郎)은 어디 가고 호호 가인(好好佳人)은 제비가 되어

연연(軟娟) 봄바람에 누상(樓上)에서 춤을 춘다

‘향림사’는 순천성의 북문으로부터 약 5리 밖에 있는 신라시대에 창건한 고찰로,⁴⁶⁾ 화자의 발걸음은 용당에서 동천을 건너 인근에 있는 이곳에 당도한 것이다. ‘비봉산’을 뒤로 하고, 앞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어 성시의 지척에 있음에도 그 풍광이 마치 ‘선경(仙境)’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하였다. 날이 저물면서 절에서는 저녁 예불을 올리기 위하여 종을 치니, 그

46) ‘自邑北距五里’, 『순천부전도』.

소리가 인근의 계곡을 울려 적막을 깨뜨린다. 비봉산과 마주한 난봉산은 성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장군인 박난봉(朴蘭鳳)의 무덤이 있어 난봉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박난봉 분묘 고적’의 참배를 잊지 않고, 퇴계 이황의 필적이 새겨진 ‘임청대’를 답사하였다.⁴⁷⁾ 다음의 행선지인 ‘옥천서원’은 무오사화(戊午士禍:1498)에 연루되어 순천으로 유배를 와서, 결국 사약을 받고 희생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의 위패가 모셔진 서원이다. 왜구의 침입에 맞서 싸웠던 박난봉의 사적을 환기시키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끝내 유배를 와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친 김굉필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작자의 의도가 일정 정도 개재한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은 죽도봉 공원에 옮겨 재건되었지만, 당시 순천 읍성의 남문루로 이용되던 ‘연자루’로 화자는 발길을 옮긴다. 연자루에 올라 사편을 바라보니, 바로 앞에는 옥천이 흐르고 옥천교를 가로 질러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화자의 입에서 ‘반구정 앞에는 복사꽃이 만발하고, 팔마비 앞에는 푸른 옥천이 흐르네’하고 시구가 절로 나온다.⁴⁸⁾ 연자루는 고려시대 승평부사로 부임한 손억(孫億)과 기녀 호호(好好)와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⁴⁹⁾ 제비 한 마리가 누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화자의 시선에 포착

47) ‘임청대’는 명종 때 순천부사로 재임하던 이정(李楨:1512~1571)이 건립하였으며, 순천에 유배와 있던 <만분가>의 작자 조위와 김굉필을 기리기 위해 ‘임청대기(臨淸臺記)’를 썼다고 한다. 기대승이 퇴계 이황에게 청하여 편역의 글을 받았기 때문에, ‘퇴계 선생 필적’이라 한 것이다.

48) ‘반구정’과 ‘팔마비’는 모두 순천에 세워진 것들이다. 팔마비는 고려시대 승평부사였던 최석(崔碩)의 사적에서 유래하여, 세워진 비석이다. 당시 이곳의 풍속은 태수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 8필의 말을 주었다고 하는데, 최석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자 고을 사람들이 보낸 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낸 말 중에서 갓 태어난 말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부터 말을 바치는 폐단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팔마비를 세웠다. 『순천시사·문화·예술편』, 902면.

49) 손억이 승평부사로 부임하여 호호라는 관기와 ‘연자루’에서 사랑을 맺었다가, 영전되

되었다. ‘연자(燕子)’는 곧 제비를 지칭하니, 봄바람이 부는 속에서 마치 춤을 추듯 유유히 날고 있는 제비를 기녀 호호의 분신으로 여겨 당시의 고사를 떠올린 것이다.

이처럼 특정 인물의 사적이나 고사와 관련된 곳은 그 사실을 밝혀놓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다음 단락에 소개되는 일본에 맞서 싸웠던 인물들을 거론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단락은 순천 외곽의 ‘용두포’에서 낙안에 이르는 여정을 담아내고 있으며, 경유지는 ‘용두포 - 신성포(충무공사) - 별량 침산 - 송천사 - 도선암 - 안동 - 오봉산 - 불재 - 낙안 - 임경업 장군 사당’에 걸쳐 있다.

용두포(龍頭浦)로 내려가니 용포(龍浦) 어선(漁船)들은
 낙조(落照)를 가득 싣고 애내성(欸乃聲)을 부르더라
 신성포(新城浦)로 돌아드니 충무공사(忠武公祠)에 이르러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과
 정운(鄭運) 송희립 장군(宋希立將軍)의 영정(影幀)에 참배(參拜)하고
 별량 침산(別良尖山)을 향(向)하여 송천사(松川祠)에 이르러
 임진 충의(壬辰忠義) 청년 장군(靑年將軍) 김대인 사적(金大仁史蹟)을
 찾아 본 후(後)
 도선암(道詵菴)을 지나 안동(雁洞)을 돌아드니
 동천미우 행화비(洞天微雨杏花飛)는 정처사(鄭處士)의 놀던 데요
 오봉산 하(五峰山下) 추차중(推此中)에 불재를 넘어 낙안(樂安)을 당도
 (當到)하니
 오(鳴) 임경업 장군(林慶業將軍) 사당(詞堂)도 웅장(雄壯)쿠나

화자는 이제 연자루를 나서, 순천 외곽의 포구인 ‘용두포’로 향한다. 어촌

어 순천을 떠난 뒤 훗날 다시 찾아와 보니 호호는 이미 늙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순천 시사-문화·예술편』, 887면.

인 이곳에서 저녁 무렵이 되어 어선이 포구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낙조를 배경으로 멀리 배속에서 노 젓는 소리⁵⁰⁾가 들려온다. 화자는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무공사’⁵¹⁾에 들르기 위해 발길을 신성포로 향한다. 충무사에 모셔진 이순신 장군 등의 영정에 참배를 하는데, 화자는 임진란 당시 왜적의 침입에 맞서 활약을 했던 이순신·정운·송희립 장군을 일일이 거론하였다. 정운(鄭運)과 송희립(宋希立)은 모두 이순신의 휘하에서 임진란 당시 왜적으로 물리치는데 크게 활약했던 무인들로, ‘항일(抗日)’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충무사에 이들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실을 거론함으로써, 독자(청자)들에게 순천에도 항일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는 사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⁵²⁾

이러한 화자의 의도는 뒷부분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여정을 별량 의 침산으로 잡은 것도 결국 김대인의 위패가 모셔진 ‘송천사’를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임진 충의 청년 장군’으로 소개한 김대인(金大仁) 역시 임진란 당시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약했던 무인으로, 침산에 위치한 송천서원 내의 ‘송천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신성포의 충무사에 모셔진 세 인물들과 더불어 김대인을 일본에 맞서 싸웠던 ‘충의’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순천 시내에서 별량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해안이 이어진 곳으로, 지금도 갈대숲으로 유명한 ‘순천만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해안의 절경보다 ‘충무사’나 ‘송천사’에 모셔진 ‘항일 인물’들의 사적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도 작자는 이순신을 비롯한 무인들의 행적으로 거론함으

50) ‘애내성(欸乃聲)’은 어부들이 노를 저을 때 내는 소리를 일컫는다.

51)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위치한 이순신을 모신 사당으로, 충무사(忠武祠)가 정식 명칭이다.

52) 이영민은 평소에도 이순신이 사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인 『벽소시고』에는 ‘독이충무공사(讀李忠武公史)’라는 제목의 시가 보인다. “焚天海火七年紅, 白首橫刀樹偉功. 早使朝廷知獄失, 僞船不敢再窺東.”(12면)

로써,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자 했던 것이라 해석된다.

다시 길을 나선 화자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접어들어 발길을 낙안 방면으로 향한다. 도선 국사(道詵國師)의 사적이 깃든 ‘도선암’을 지나, ‘승평팔문장(昇平八文章)’⁵³⁾의 한 사람인 정시관의 고사를 담고 있는 ‘안동’에 접어든다. ‘깊은 계곡에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살구꽃이 날리듯 떨어지니’, 그 풍경이 속세의 번거로움을 피해 은거해 살던 ‘정처사’가 놀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봉산 언저리를 지나 ‘불재’를 넘어, 화자는 드디어 ‘낙안’에 당도하였다.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은 지금도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라 하겠다.

그러나 화자는 낙안읍성의 풍경보다 ‘임경업 장군 사당’의 웅장함에 더욱더 감탄하고 있다. 임경업(林慶業:1594~1646)은 병자호란(1636) 당시 청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무인으로, 낙안 읍성에 그 사당에 세워져 있다. 그 사당을 ‘웅장’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외세에 항거했던 임경업의 행적을 고려한 화자의 평가라 하겠다. 따라서 이 단락은 이영민이 <순천가>를 지은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작품을 지은 이유는 단순히 ‘순천의 자연 풍경’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이 단락에서 화자가 거친 곳은 대부분 외세에 항거했던 인물들의 사적이 있는 곳으로, 그러한 사적을 통해서 작자는 독자들에게 일제 강점기 치하의 당시 상황을 환기시키고자 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낙안 주위의 산세를 묘사하고, 순천의 양대 고찰인 선암

53) ‘승평(昇平)’은 순천의 옛 지명인데, 속세에서 벗어나 벼슬하지 않고 산수가 좋은 순천에서 지내며 시문에 힘쓴 8명을 ‘승평팔문장’이라 일컫는다. 최만갑·정시관·양명웅·박시영·황일구·정우형·정하·허빈 등이 그들이다. 이 작품에서 ‘정처사’는 바로 정시관(1612~1687)을 가리킨다.

사를 거쳐 송광사에 이르는 여정이다. 이렇듯 순천의 내·외곽을 답사하며 소개한 후, 화자는 ‘과연 순천은 동방 일대 명승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작품을 종결짓고 있다.

청풍(淸風)은 백이산(伯夷山)이요 백운(白雲)은 금강암(金剛庵)이라
만고충의(萬古忠義) 관성대제(關聖大帝)의 영정(影幀)에 참배(參拜)하고
조계산 상(曹溪山上)에 올라서서 선암사(仙岩寺) 풍경(風景)을 바라보니
만산구추(滿山九秋) 고운 단풍(丹楓)은 황금세계(黃金世界)를 이루었고
법당(法堂)에 염불(念佛)소리 일신청정욕고비(一身淸淨欲高飛)라
승선교(昇仙橋) 하(下) 맑은 물은 속세(俗世)를 따라 진세간(塵世間)으로
흘러간다

굴미기를 넘어 송광사(松廣寺)에 당도(當到)하니
과연(果然) 동방승지(東邦勝地)의 조종(祖宗)이요
천고유명(千古有名)한 대사찰(大寺刹)이 분명(分明)하다
국사전(國師殿)에 십육국사(十六國師)의 영정(影幀)과 불감(佛龕)이며
능견난사(能見難思) 등(等) 고적예품(古蹟藝品)을 구경(求景)하고
육관정(六觀亭) 놀던 수석(水石) 사시 유람객(四時遊覽客)이 끊일 새 바
이 없다

속세(俗世)에 묵은 마음 간 데 없고 일신 청정(一身淸淨) 새로워라
천자암(天子庵)에 당도(當到)하여 일지요(一枝搖) 쌍향수(雙香樹)도 흔
들어 보고

사중 국보(寺中國寶) 제서(諸書)를 일일(一一)히 관람(觀覽)하니
과연(果然) 순천(順天)은 동방(東邦) 일대 명승지(一大名勝地)됨을 알겠
더라.

‘백이산’과 ‘금강암’은 모두 낙안의 인근에 있는 지명으로, 낙안에서 바라 본 두 곳의 모습을 화자는 각각 ‘청풍’과 ‘백운’에 비견하고 있다. 금강암에는 당시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삼국지』의 인물 관우(관성대제)를 모시

고 있었던 듯한데, 화자는 그곳에 들러 참배를 하였다. 관우가 화자의 참배 대상이 된 것도 역시 ‘만고 충의’의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명산인 조계산의 양편에는 순천의 양대 고찰인 선암사와 송광사가 위치하고 있다. 화자는 조계산 정상에 올라가서, 선암사는 멀리 바라보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조계산의 모습은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마치 황금세계인 듯하고, 멀리서 들리는 선암사 법당의 염불 소리는 ‘일신을 맑게 하여 높이 날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선암사 초입의 ‘승선교’ 밑을 흐르는 맑은 물이 티끌이 가득한 속세로 흘러 세상을 조금이라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자는 생각한다.

‘굴미기’는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는 고개로, ‘굴목재’라고도 한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인 ‘승보사찰’이라 칭해지는데, 도량의 웅장함이 ‘동방승지의 조종이요 / 천고 유명한 대사찰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송광사에서 배출한 뛰어난 고승들이 모여진 ‘국사전’에서 ‘십육국사의 영정’에 참배하고, 국보로 지정된 ‘목조삼존불감’의 관람도 빼놓을 수 없다. 위와 아래 어느 쪽으로 맞춰도 꼭 들어맞는 밥그릇으로, 조선시대 숙종이 신기하에 여겨 ‘능견난사(能見難思)’라 했던 유물도 송광사에 들르면 잊지 말고 관람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송광사의 유물과 유적을 꼼꼼히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는데, ‘육관정’ 주변의 각종 수석들도 사시사철 관람객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천년 고찰을 둘러보며 산사의 정경에 흠뻑 빠져들어, 속세의 묵은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화자의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일견 당연할 것이라 여겨진다. 송광사의 암자인 ‘천자암’의 경내에는 지금은 ‘천연기념물’(제88호)로 지정된 ‘쌍향수’가 서있는데, 화자는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향나무의 가지 하나를 흔들어 보기도 하였다. 송광사의 국보라 할 수 있는 많은 서적들을 일일이 관람하는 것으로 화자의 순천 유람은 끝이 난다. 이처럼 빼어난 경치와 더불어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있기에,

화자는 순천이야말로 ‘동방 일대 명승지’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주로 ‘삼보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의 유물과 유적들을 살핌으로써 작품이 종결된다.

이상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에 나타난 순천의 옛 모습을 살펴보고, 작품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작가 의식의 일단을 검토해 보았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작품 속에 제시된 모습이 지금과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명승과 유적들을 통해 순천의 다양한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만약 작품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지금도 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는 것도 <순천가>가 지닌 특징의 하나이다. 더욱이 작품 속에 담겨진 자연의 형상은 그대로 창작 당시의 실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관념적인 내용으로 형상화된 여타의 지명가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순천의 유물 중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다양한 인물들의 사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치하에 살고 있던 독자들에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돌아보도록 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을 노래로 만들어 널리 보급함으로써, 고향인 순천의 아름다움을 전하려는 목적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순천가>의 작자인 벽소 이영민의 행적과 작품 속에 형상화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영민은 순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인물로, 고향의 명승과 유적들을 알리고자 1930년 경에 <순천가>를 창작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서예가와 판소리 후원자로도 활동했다. 판소리 창자 등 당대의 음악인들을 만나 그들을 평가하는 한시를 지어 주고, 또 그 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자료로 남기기도 했다. 판소리에

대한 이영민의 관심은 지대했었는데, <순천가>는 판소리에 앞서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허두가’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 작품이 판소리 창자들에게 허두가로 불린다면, 자연스럽게 작자의 고향인 순천을 알릴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판소리에 대한 그의 후원 활동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순천가>는 판소리와 더불어 이영민의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파악된다.

언제 국권이 회복될 지도 모르는 일제 강점기 하의 암울한 현실에서, 이영민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와 고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우석 김중익으로 하여금 거금을 투자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이 역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1900년대 초에 순천에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일제와 결탁한 지주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소작농들을 위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여, 고향 사람들이 현실에 좌절하고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고향의 곳곳을 소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순천가>를 창작하였다. 나아가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세에 적극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작품 속에 여러 인물들의 사적으로 통해서 환기하고자 했다. ‘충무사’와 ‘송천사’에 모셔진 이순신 등 임진란 당시 큰 활약을 펼쳤던 무인들을 비롯하여, 청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임경업의 사당을 소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도라 하겠다. 따라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작가의 의식을 적극적으로 간취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순천가>를 검토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에 본고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영민, 『벽소시고』(등사본).

(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 편, 『관극·시·사』(자료집).

『순천부전도』(1872년, 규장각 소장, 123×73cm).

2. 논문 및 단행본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164면.

권순희, 『단가의 사적 전개와 문학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104면.

김용찬, 『<갑민가>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재검토』, 『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사, 2002, 271~299면.

김정은, 『신재효 가사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106면.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118~125면.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문화·예술편』, 순천시, 2007, 1~993면.

이혜화, 『『해동유요』 소재 가사고』, 『국어국문학』 제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85~104면.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4면.

진경환, 『반봉건과 문학적 대응, 민란가사』, 『우리 고전문학을 찾아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223~243면.

진인호·허근 역해, 『순천 옛시』, 순천문화원, 2004, 475~477면.

Abstract

Byeokso Lee Yeongmin and Suncheonga

Kim, Yong-Chan

In the *Gasa Suncheonga*, ancient history on various geographical names and historical persons related to *Suncheon* area are encapsulated. This work was created in 1930 or so by *Byeokso Lee Yeongmin* who lived and worked in *Suncheon*. Various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in *Suncheon* area are introduced in this work. The objective of the creation of this work was to introduce the nature and history of *Suncheon* and to demonstrate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Suncheon* by having it be sung by *Pansori* singers as a *Heoduga*-style song.

Lee Yeongmin, the author of *Suncheonga*, was an educator, calligrapher and independence movement leader. Adopting socialism as his ideology early, he took part in peasant movement for peasants laid under miserable circumstance. In 1920s, he led peasant movement in *Suncheon*, resulting in imprisonment for two years by Japanese imperial power. He was also an active supporter of *Pansori* singer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king *Pansori* remain in existence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period. As the surveillance of Japanese imperial power became more severe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he focused on culture movement. He met famous contemporary musicians, wrote Chinese poems on their music, and took photographs of themselves with the background of those poems.

Lee Yeongmin was proud of civilization of his hometown *Suncheon*, which is believed to have motivated creation of *Suncheonga* to introduce *Suncheon* to people. *Suncheonga* helps understand *Suncheon* deeply because it contains introduction to a variety of aspects of *Suncheon* including its nature, civilization and people. Not limited to simply mentioning geographical names, the author

expressed his resistant consciousnes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Suncheonga* in his own way. It is concluded that *Suncheonga* was written to introduce the author's hometown *Suncheon* and express his love to *Suncheon*.

key-words : *Suncheonga*, *Byeokso Lee Yeongmin*, *Heoduga*, *Pansori* supporter, Civilization of *Suncheon* etc.

김용찬

소속 :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전남 순천시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106-502

전화번호 : 061-750-3316

전자우편 : chany1@sunchon.ac.kr

이 논문은 2011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